

『美術史學研究』 간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미술사학회(이하 본회라고 칭함)의 정관 제2장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美術史學研究』(이하 학회지라고 약칭함)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행일자)

학회지의 간행은 매년 4회로 하며,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 연 1회에 한하여 합집호를 간행할 수 있다.

제3조 (논문투고)

가. 학회지에는 한국 및 관계지역 미술사에 대한 연구 논문 및 기타 학회 학술활동에 부합하는 글을 수록한다.

나. 논문의 저자는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본회 기획사업 등과 관련한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논문의 투고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국내외의 연구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원칙으로 한다.

라. 논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투고할 수 있다.

마.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바. 투고 논문의 작성 및 제출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투고 지침'에서 정한다.

사. 게재료는 '투고 지침'에서 정한다.

아. 연 1회 투고가 가능하다.

자.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 투고 시에는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확보하며, 가능한 투고를 제한한다. 특수 관계인은 만 19세 이하인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을 말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가. 학회지 간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 편집위원장은 본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라. 편집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연구실적과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이사회가 선임한다.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반드시 국외의 전문 연구자를 포함한다.

마.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바.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위해 편집간사를 둔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가.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논문 모집, 심사 및 게재 여부, 편집,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매년 4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편집위원장은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라.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6조 (심사)

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심사를 행한다.

나. 1차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내용의 학문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심사를 행한다.

다. 2차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회 기획사업 등과 관련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절차)

가. 투고는 상시 받으며 투고된 논문은 즉시 심사를 개시한다.

나. 투고자는 논문 원고를 학회의 웹하드에 탑재하거나 학회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본회에 제출하며, 심사료(10만 원)를 본회 은행계좌로 온라인 납부하여야 한다.

다. 1차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는 심사료를 반환한다.

라. 1차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2차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각 논문당 3명씩 선정한다.

마.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단 발표 추천자, 투고 추천자, 해당 논문의 지도교수, 현재 투고자의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바. 본회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 공문을 발송하며, 심사위원은 본회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 의견서를 제출한다.

사. 투고자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위원 및 심사과정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아.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완료 후 소정의 심사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심사기준)

가. 1차심사는 투고된 논문이 본회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를 다룬 것인지 여부, 별도 투고 지침에서 정한 형식 및 분량을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행한다.

나. 2차심사는 아래사항을 염두에 두고 투고된 논문의 학문적 수준을 평가한다.

- ① 새로운 자료의 발굴
- ② 새로운 문제의식과 논점 제시
- ③ 문제 해결에 적절한 방법론 사용
- ④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논문 구성
- ⑤ 참조 및 인용 문헌의 성실한 제시
- ⑥ 학계의 기여도

다. 2차심사는 'A: 게재가(수정후 게재 포함)', 'B: 수정 후 재심', 'C: 게재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라.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판정한 등급을 따른다. 단 A-A-C 로 판정되었을 경우 심사위원 2인을 다시 선정하여 추가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다시 A-C 로 판정되었을 경우 편

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또한 3인이 모두 각각의 등급으로 판정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1인을 다시 선정하여 추가 심사를 의뢰한다.

마. ‘수정 후 재심’ 판정의 경우 동일한 심사위원이 수정된 논문에 대하여 재심을 행한다. 재심의 경우 ‘A: 게재가’, ‘C: 게재불가’의 2등급으로 판정한다.

2차심사 판정 표

판정	추심판정	재심판정	결과
AAA			A
AAB			A
ABB		AA	A
		AC	A
		CC	C
BBB		AAA	A
		AAC	A
		ACC	C
		CCC	C
BBC		AA	A
		AC	C
		CC	C
ACC			C
BCC			C
CCC			C
AAC	AA		A
	AB		A
	AC		편집위원회
	BB		A
	BC		C
	CC		C
ABC	A		A
	B	AA	A
		AC	C
		CC	C
	C		C

바.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수정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반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한 내용의 대비표를 최종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이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원고는 게재되지 않을 수 있다.

사. 편집위원회는 1, 2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아. 최종 게재로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학회사정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저작권)

가.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나. 도판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10조 (저작권)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부칙

(1)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2)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발효한다.

- * 제정 : 1998년 12월 17일
- * 개정 : 2002년 3월 10일
- * 개정 : 2006년 9월 23일
- * 개정 : 2007년 6월 23일
- * 개정 : 2008년 4월 1일
- * 개정 : 2009년 1월 15일
- * 개정 : 2014년 4월 26일
- * 개정 : 2020년 7월 15일
- * 개정 : 2020년 11월 2일
- * 개정 : 2022년 3월 15일